

학군사관후보생(ROTC) 제42기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학군장교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년간 대학생생활과 군사훈련을 함께 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스스로 어려운 과정을 선택하고 훌륭히 마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문무를 두루 갖춘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43년에 이르는 학군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3만 7천 여명의 선배들이 쌓아 놓은 전통과 명예를 이어갈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람된 자리를 함께 하신 학부모님, 학생중앙군사학교장 박남필 장군을 비롯한 교관과 훈육관,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군의 통수권자로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취임 당시 전쟁위기설까지 공공연히 나돌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요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작년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미·일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부터는 미국·일본·중국을 차례로 방문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닥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베이징에서는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달 초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과 북은 베이징 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착실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간 회담은 모두 38회에 걸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대화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동맹 강화 등 여러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당장의 불안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룩한 값진 성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화유지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노력을 높이 치하합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상황 또한 잠시라도 방심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안보상황에 적극 대처해서 완벽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에는 한치의 빈틈도,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방위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자주국방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다자안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질서가 정연하고 사기가 충천하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안보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국군장병 모두가 군 생활을 즐겁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도 필요합니다.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업무혁신을 통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학군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전국 91개 대학에서 선발된 엘리트입니다. 우리 군의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을 더욱 키워 21세기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깊은 애정으로 여러분의 장도를 지켜볼 것입니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군사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역량을 조국을 위해 마음껏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관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무운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